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8(5) : 763~769, 2003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8(5) : 763~769, 2003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한 국내 외식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천 희 숙 · 한 경 수†

경기대학교 관광학부 외식·조리전공

The Effect of the Food Service Industry up on the National Economy of Korea

Hee-Sook Cheon, Kyung-Soo Han†

Department of Food Service & Catering Management, Kyonggi University, Suwon, Korea

ABSTRACT

The food-service industry in Korea has experienced remarkable growth during the past few decade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the influence of the food-service industry upon the national economy by using an input-output analysis and to find the industrial position of the food service industry. This paper analysed the economic effect of the food-service industry using 168 items arranged in a transaction table based on producer's prices in the 1995 input-output tab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food-service industry had a major influence on the national economy of Korea. Based on the calculation of the following five coefficients; Korea's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 ranked as 50, its import inducement coefficient ranked as 28, its value added inducement coefficient ranked as 32, its worker inducement coefficient ranked as 2 and its employee inducement coefficient per final demand ranked as 5 in a total of 168 industries.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8(5) : 763~769, 2003)

KEY WORDS : the food-service industry · input-output analysis · economic effect

서 론

외식산업이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1980년대 접어들면서 외식업이 사회 · 경제적으로 비중이 점차 증대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외식기회의 증대와 외식에 대한 사회적 개념의 변천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전에는 음식업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이었으나 산업 규모의 원리가 적용되고 외식행위 자체가 사회, 경제, 문화적인 구조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외식산업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외식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대기업의 참여가 큰 계기가 되었다(Park 1999). 통계청 한국통계연감에 의하면, 음식점은 1976년 97,271개에서 2000년 570,567개로 증가하였고, 매출액은 1976년 4000억원에서 2000년 35.8조원으로 증가하였고, 종업원수는 1976년 255,574명에서 2000년에는 1,430,476명으로 집계되었다. 지난 24년간 외식산업은 매출액, 종업원수, 점포수에서 놀라운 규모의 성장을 했으며, 이는 외식산업과 관련된 산업의 성장과 연관되어 경제성장에 일조했음을 의미한다. GDP (Gross Domestic Product)을 이용한 경제성장(economic growth)은 주로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요인을 분석하거나 다른 나라와의 경제성장 정도를 비교하여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데 사용되지만,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취득한 소득까지 합한 GDP의 개념을 고려할 때 부적절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936년 레온티에프(Leontief)에 의해 시작된 산업연관분석(Input-Output Analysis 또는 Interindustry Analysis)은 국민 경제를 여러 산업 부문으로 세분하여 구조적 측면에서 상호연관관계를 살필 수 있으며 어느 산업의 제품에 대한 최종수요의 변동이 각 산업의 생산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산업연관표는 보통 1년 동안 국민경제 내에서의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정에서

채택일 : 2003년 9월 18일
†Corresponding author: Kyung-Soo Han, Department of Food Service & Culinary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Kyonggi University, San 94-6 Yiui-dong, Paldal-gu, Suwon-si, Kyonggi-do 442-760, Korea
Tel: (031) 249-9544, Fax: (031) 241-1702
E-mail: chs0527@hotmail.com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이며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를 첫째 산업 상호간의 중간재 거래부문, 둘째 각 산업부문에서의 노동·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의 구입부문, 셋째 각 산업부문 생산물의 최종소비자에게로의 판매부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다. 산업연관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읽을 수 있는데, 세로(列, column)방향은 각 산업부문이 재화 및 용역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한 생산비용의 구성 즉 투입구조를 나타낸다. 투입구조는 원재료의 투입을 나타내는 중간투입부문과 임금·이윤·간접세 등 본원적 생산요소의 구입비용을 나타내는 부가가치부문으로 구분되며 그 합계를 총투입액이라고 한다. 또한 가로(行, row)방향은 각 산업부문의 생산물이 어떤 부문에 중간수요 또는 최종수요 형태로 얼마나 팔렸는가를 나타내는 배분구조를 나타낸다. 배분구조는 생산을 위하여 직접 투입되는 중간수요부문과 소비재, 자본재, 수출 등의 최종재로 판매되는 최종수요부문으로 구분되며 중간 수요액과 최종 수요액의 합계를 총수요액이라고 한다. 그리고 총수요액에서 수입을 공제한 것을 총산출액이라고 하는데 각 산업부문의 총산출액과 이에 대응하는 총투입액은 항상 일치하게 된다(The Bank of Korea 1998; Schultz 1936). 내생부문이란 외생부문의 수치가 모형(模型)밖에서 주어지면 이에 따라 수동적으로 모형 내에서 그 값이 결정되는 부분이란 의미로 산업연관표 작성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문이며 작성된 표의 분석이나 이용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문이다. 외생부문이란 내생부문과는 관계없이 모형 밖에서 값이 결정되는 부문이란 의미로 이 부문의 값의 변동이 경제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미치는가를 알아보려는 것이 산업연관표 작성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The Bank of Korea 1987). 관광산업의 경우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여 관광산업의 가치를 가시화하는 많은 연구가(Kim 1998; Lee 1999; Ryu 1999, 2000; Lee 1999, 2003) 등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더 나아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관광 산업의 관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외식산업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는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목적은 한국은행에서 작성한 '95년 산업연관표의 생산자 가격표를 중심으로 도출된 5개의 유발액 및 유발인원 그리고 유발계수와 유발의존도를 도출하여 외식산업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외식산업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산업적 위치를 파악하였고 외식산업의 중요성을 가시화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세부 목적은 첫째, 산업연관표의 168부문 생산자가격표(경상표)를 기준으로 외식산업 1부문이 유발하는 생산유발계수·수입유발계수·부가가치유발계수·취업유발계수·고용유발계수를 도출하였고 둘째, 외식산업의 전·후방연쇄효과와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를 분석하였고 셋째, 외식산업의 최종수요항목별 생산·수입·부가가치 유발액과 유발계수 및 유발의존도 그리고 취업 및 고용의 유발인원과 유발계수 및 유발의존도를 도출하여 외식산업이 경제에 미친 총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범위

산업연관분석 과정은 연구대상인 산업의 정의를 한 후 산업의 독립화를 한다. 그리고 국내 산업을 연계된 산업으로 분류 통합하여 각종 계수를 도출하여 대상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연관표에서 분류 또는 통합 방식의 기준에 따라 각종 승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되었으나(Kim 1998), 경제적인 파급효과추계를 위해서 각 산업의 독립화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므로(Son 1997) 본 연구에서는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의해 산업 분류가 되어있는 168부문을 기준으로 외식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기로 했다. 외식산업이라는 단어는 한국의 산업을 분류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이나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의 종류에서도 국세청의 「표준소득률표」상에도, 「관광진흥법」상의 편의 시설업에도 존재하지 않는다(Na 1998).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기준에 따라 분류된 산업연관표 상에서의 음식점 정의와 해당범위를 한국은행 투입 산출팀에 의뢰하여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외식산업의 범주로 설정하였고 이를 연구의 범위로 정하였다. 1995년 산업연관표상의 음식점 분류기준은 Table 1과 같으며 음식점업의 해당 범위는 각종 식당업·

Table 1. Categories of the food service industry in 1995 input-output tables

28 sectors		77 sectors		168 sectors		402 sectors	
No.	Name of sector	No.	Name of sector	No.	Name of sector	No.	Name of sector
0020	Eating & drinking · Hotels & other lodging places	0064	Eating & drinking · hotels & other lodging places	0135	Eating & drinking	0332	Eating & drinking
				0136	Hotels & other lodging places	0333	Hotels & other lodging places

Data: the bank of Korea, 1995 input-output tables CD-ROM, 1998

주점업 · 다과점업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음 · 식료품을 조리하여 제공하거나 조리된 음 · 식료품의 판매에 따른 서비스 제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음식재료비는 음식점 부문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추계기준의 차이로 인하여 통계청에서 발표된 1995년 음식점의 매출액(20조)보다 산업연관표상의 매출액(5조)이 현저하게 적게 추계되는 원인이 되었다. 산업연관표상의 음식점에 포함되는 업종은 한식 · 중식 · 일식 · 양식 · 고급 음식점 · 기타 식당 · 한국식 유흥주점 · 일반 유흥주점 · 무도 유흥주점 · 기타 주점(케이터링 · 스넥 · 분식점 · 튀김집 · 생선회집 · 소규모 간이음식점 · 출장요리) · 제과점 · 다방 · 기타(인삼찻집 · 고속도로 휴게점 · 간이양식당 · 체인화 음식점)등으로 분류되고 있다(The Bank of Korea 1998).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산업연관표는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생산기술의 변화와 상대가격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규모가 방대하고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투입구조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한 실측표(bench-mark table)와 기준년에서 시간이 멀어질수록 기준년에 의한 산업구조와 현실적인 산업구조와의 괴리가 발생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산업부문 전체에 대한 투입구조는 조사하지 않고 생산액 증감이 현저하거나 전체산업에서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거나 또는 생산기술이나 상대가격이 현저하게 변하여 투입구조가 크게 변했다고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만 투입구조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한 연장표(extened table)의 두 종류가 있다. 비교적 체계 있는 형식과 내용을 갖춘 실질적인 산업연관표는 1960년부터 한국은행에서 작성되었으며 경제규모의 확대와 경제개발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고 경제개발계획수립의 기초자료 및 제반 경제 정책 입안 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1960년, 1963년, 1966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및 1995년의 총 9회 실측표와 1968년, 1973년, 1978년, 1983년, 1986년, 1987년, 1988년, 1993년, 1998년의 총 9회 연장표가 작성되었다(The Bank of Korea 2001). 연구 수행 연도인 2002년 현재 가장 최근의 자료로 1998년 산업연관표(2001년 공표)가 있었으나 이는 IMF로 인한 특수한 경제 상황이 반영된 연장표이였으므로, 외식산업의 성장기로 분류되었던 1990년대 외식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1998년에 공표된 1995년 실측표를 연구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식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1995년 산업연관표 내에서의 음식점업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2) 계수의 도출

(1) 투입계수의 도출

투입계수는 각 산업부문이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산업으로부터 구입한 각종 원재료, 연료 등 중간 투입액을 총투입액으로 나눈 수치로 도출되어지며, 투입계수의 정의는 각 부문 생산물 1단위 생산에 필요한 각종 중간재 단위를 의미한다(The Bank of Korea 2001; Richardson 1972; William 1965).

(2) 생산유발계수의 도출

생산유발계수의 도출과정을 행렬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으며, 수식에서의 $(I - A)^{-1}$을 생산유발계수 행렬이라고 하며, 생산유발계수의 의미는 최종수요 1단위가 증가했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산업 부문에서 유발되는 직 · 간접 생산파급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학적 방법의 하나인 역행렬을 이용하기 때문에 역행렬계수라고도 부른다(Roo & Lee 1999).

$AX + Y - M = X$

$X - AX = Y - M$

$(I - A)X = Y - M$

$X = (I - A)^{-1}(Y - M)$

단, A: 투입계수행렬, X: 총산출액 벡터, Y: 최종수요 벡터, M: 수입액 벡터, I: 대각행렬, $(I - A)^{-1}$: 생산유발계수.

(3) 수입 및 부가가치유발계수의 도출

아래의 $A_m(I - A_d)^{-1}$이 수입유발계수행렬이며, 수입유발계수는 최종수요의 발생에 따라 경제 내에서 직 ·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수입을 의미한다(Roo & Lee 1999).

$A_mX + Y_m = M$

$X = (I - A_d)^{-1}Y_d$

$A_m(I - A_d)^{-1}Y_d + Y_m = M$

단, A_m: 수입중간투입투입계수행렬, A_d: 국산투입유발계수행렬, Y_m: 수입최종수요벡터, Y_d: 국산최종수요 벡터.

아래의 $\hat{A}v(I - A_d)^{-1}$이 부가가치유발계수행렬이며,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최종수요의 발생에 따라 경제 내에서 직 ·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부가가치를 의미한다(Roo & Lee 1999).

$\hat{A}v \cdot X = V$

$(I - A_d)^{-1} Y_d = X$를 대입,

$\hat{A}_v(I - A_d)^{-1}Y_d = V$

단, $\hat{A}$는 부가가치합계 대각행렬, V는 부가가치합계의 벡터.

(4) 노동계수와 노동유발계수

노동유발계수(또는 고용유발계수)는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각 산업에서 유발되는 직 · 간접적인 노동량을 의미하며, 노동유발계수에서 노동계수를 제한 나머지가 최종수요 발생에 따른 간접 노동유발을 의미한다. 노동계수는 1단위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을 의미하며 노동계수식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l = L/X$

단, l은 노동계수, L은 투입노동량, X는 총산출액.

노동유발계수는 앞의 노동계수를 생산유발계수에 대입하여 구하며, 아래 식에서 $\hat{l}(I-A_d)^{-1}$를 노동유발계수행렬이라고 한다(Roo & Lee 2001).

$l = L/X$을 풀면 $L = l \cdot X$가 되며, 여기에

$X = (I-Ad)^{-1}Y_d$을 대입하여 풀면

$L = \hat{l}(I-A_d)^{-1}Y_d$

연구결과 및 고찰

1. 1995년의 외식산업의 생산, 수입, 부가가치, 취업 및 고용 유발계수의 산출

산업연관표는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국내 생산품과 수입품으로 구분하지 않고 각 수요부분을 일괄 배분하여 작성한 표인 경쟁수입형표와 이를 구분하여 작성한 표인 비경쟁수입형표가 있다. 비경쟁수입형표는 국내 생산품과 수입품의 구분으로 국내생산파급효과와 수입유발 효과를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종수요발생에 따른 국내 생산파급효과만을 정확히 계측하기 위해 국산과 수입을 구분하여 작성한$(I - A_d)^{-1}$형의 생산유발계수표를 사용하였다(The bank of Korea 1998). 외식산업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산업부문에서 직 · 간접으로 유발되는 외식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1.004273, 수입유발계수는 0.100672,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99328로 산출되었다. 노동계수는 포함하는 노동량의 범위에 따라 고용계수와 취업자계수로 나눌 수 있는데, 고용계수는 고용된 유급노동자를 의미하는 피용자만을 포함한 개념이고 취업계수는 피용자에게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개념이다. 외식산업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산업부문에서 직 · 간접으로 유발되는 취업인원수로 외식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0.224773, 고용유발계수는 0.089909로 산출되었다. 취업 유발계수가 고용유발계수보다 높은 이유는 외식산업의 특성인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Table 2. Various inducement coefficients of the food-service industry in 1995

various inducement coefficients of the food service industry	Numerical value
Product inducement coefficient	1.004273
Import inducement coefficient	0.100672
Value added inducement coefficient	0.899328
Work inducement coefficient *	0.224773
Employee inducement coefficient	0.089909

Data: the bank of Korea, 1995 input-output tables CD-ROM, 1998

2. 1995년 외식산업의 전 · 후방연쇄효과 및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 산출

후방연쇄효과는 타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구매하는 정도로 산업연관표에서 중간 투입률로 측정할 수 있으며, 전방연쇄효과는 다른 산업에서의 생산 증가로 인하여 어느 한 산업이 필요한 중간재를 공급하는 정도로 산업연관표에서 중간 수요율로 측정할 수 있다. 외식산업의 후방연쇄효과는 168부문 중 120위로 0.5033, 전방연쇄효과는 168부문 중 38위로 0.0040이었다. 따라서 국내 외식산업은 후방연쇄효과가 약하고 전방연쇄효과가 비교적 큰 산업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로써 외식산업은 타산업의 중간 수요재로서 많이 사용되었으며 타산업의 발전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라고 분석되었다.

영향력계수는 어떤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때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 즉 후방연쇄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전 산업 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나타내는 계수이며, 감응도계수는 어떤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각 한 단위씩 발생할 때 어떤 산업이 받는 영향 즉 전방연쇄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전 산업 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나타내는 계수로, 전 산업의 영향력계수는 제당(1.479942) · 사무용품(1.449208) · 가죽 및 모피의류(1.427978)의 순으로, 외식산업의 영향력계수는 0.795869로 168부문 중 128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외식산업의 최종수요 유발은 타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약한 산업이며 주로 소비 위주의 산업이라고 분석되었다. 전 산업의 감응도 계수는 석유 화학 기초 제품(4.332659) · 도소매(3.629139) · 금융(3.569562)의 순으로 외식 산업의 감응도계수는 1.034369로 168부문 중 51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외식산업의 최종수요가 발생함으로써 타산업의 수요 유발을 많이 하는 산업으로 분석되었다.

3. 1995년 외식산업의 최종수요항목별 유발액(인원), 유발계수 및 유발의존도 산출

Table 4는 1995년 외식산업의 최종수요항목별 유발액(인원) 및 유발계수를 도출한 표이다. 1995년 전 산업 최종수요항목별 생산유발액 841조 5,186억원 중 외식산업에서 5조 1,985억원이 국내 전 산업에서 직 · 간접적으로 유발되었으며, 전 산업의 최종수요항목별 수입유발액 127조 7,428억원 중 외식산업에서 1조 3,859억원의 수입이 유발되었으며, 전 산업 최종수요항목별 부가가치유발액 375조 8,029억원 중 외식산업에서는 2조 5,820억원의 부가가치가 유발되었다. 또한 최종수요항목별 취업유발인원은 1,719만명 중 외식산업에서 116만명의 취업인원이 유발되었으며, 최종수요항목별 고용유발인원은 1,132만명 중 외식산업에서는 46만 5천명의 취업인원이 유발되었다.

외식산업의 최종수요항목별 생산유발계수의 평균은 168부문 중 50위, 수입유발계수는 28위, 부가가치유발계수는 32위, 취업유발계수는 2위, 고용유발계수는 5위로 분석되었다. 이는 외식산업이 業이 아닌 국가의 주요산업에 위치함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생산 · 수입 · 부가가치유발계수와는 달리 취업유발계수의 순위가 국내 산업 중에서 높았던 것으로 국내 외식산업은 저임금 구조의 산업이라고 분석되었으며, 취업유발계수가 고용유발계수보다 높았던 것으로 보아 외식산업은 아직도 자영업의 비중이 큰 산업이라고 분석되었다.

Table 5은 1995년 전 산업과 외식산업의 각종 유발의존도를 최종수요항목별로 분석한 표이며 Fig. 1과 Fig. 2는 1995년 전 산업과 외식산업의 각종 유발의존도를 최종수요항목별로 비교 분석하기 위한 차트이다.

최종수요항목은 민간소비지출과 정부소비지출을 합친 소비와 민간고정자본형성과 정부고정자본형성과 재고증가를 합친 투자와 수출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5

Table 3. The backward linkage effect & The forward linkage effect and index of the power of dispersion & index of the sesitivity of dispersion of the food-service industry

Item	Ranks	Item	Ranks
The backward linkage effect	0.5033 (120/168)	The forward linkage effect	0.0040 (38/168)
Index of the power of dispersion	0.795869 (128/168)	Index of the sensitivity of dispersion	1.034369 (51/168)

Table 4. Total induced output and inducement coefficients per final demand of food-service industry in 1995

	Total induced output	Average of inducement coefficients	Ranks
Production	5,198,527 million won	0.010324	50/168
Import	1,385,971 million won	0.002752	28/168
Value-added	2,582,035 million won	0.005128	32/168
Worker	1,164,703 persons	0.002313	2/168
Employee	465,881 persons	0.000925	5/168

Data: the bank of Korea, 1995 input-output tables CD-ROM, 1998

Table 5. The inducement defendence degree per final demand of the food service industry (unit: %)

		Consumption		Investment			Export
		Private consumption expenditure	Government consumption expenditure	Private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Gvernment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Increase in stocks	
Production	Food service Industry	55.22	7.27	9.22	1.49	0.17	26.60
	Average of all Industry	37.81	6.98	25.63	4.38	0.45	24.74
Import	Food service Industry	74.63	5.35	6.77	1.10	0.13	12.02
	Average of all Industry	31.35	3.36	33.22	1.84	0.61	29.63
Value added	Food service Industry	55.22	7.28	9.22	1.49	0.17	26.60
	Average of all Industry	43.35	8.90	23.11	4.00	0.40	20.22
Worker	Food service Industry	55.22	7.28	9.22	1.49	0.17	26.60
	Average of all Industry	50.20	8.55	19.06	3.42	0.71	18.06
Employee	Food service Industry	55.22	7.27	9.22	1.49	0.17	26.60
	Average of all Industry	40.90	11.15	23.02	4.46	0.33	20.14

Data: the bank of Korea, 1995 input-output tables CD-ROM (transaction table, 168 sectors),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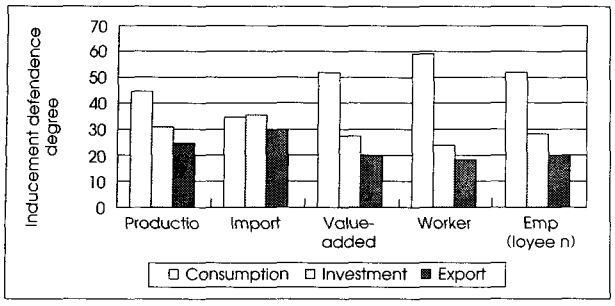

Fig. 1. Comparison of inducement defendence the degree per final demand of all industries (uni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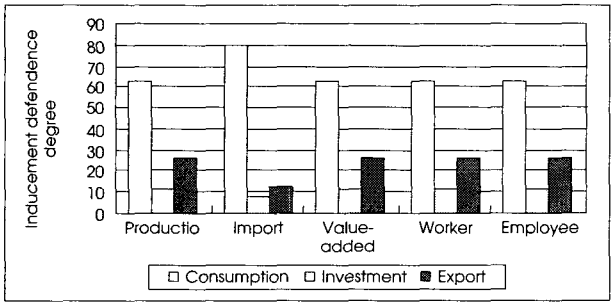

Fig. 2. Comparison of the inducement defendence degree per final demand of the food-service industry (unit: %).

년 전 산업의 각종 유발 의존도는 최종수요항목인 소비 · 투자 · 수출의 순으로 유발되었으며 특히 취업유발인원의존도는 최종수요항목 중 소비에 많이 의존하였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1995년 국내 외식산업의 최종수요항목별 각종 유발 의존도는 전 산업과 달리 소비 · 수출 · 투자의 순으로 유발되었고, 수입유발의존도는 최종수요항목 중 소비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었으며 이는 1990년대 대기업을 포함한 민간 자본이 외국계 급식업체 · 패밀리 레스토랑 및 패스트푸드업체에 지출된 결과였다고 분석되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995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외식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후 국내에서 차지하는 외식산업의 산업적 위치를 파악하였고, 국가의 주요산업으로서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첫째 최종수요항목별 외식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168부문 중 50위, 수입유발계수는 28위, 부가가치유발계수는 32위, 취업유발계수는 2위, 고용유발계수는 5위로, 전 산업 중 비교적 높은 순위의 유발계수를 도출하여 이제는 業이 아닌 국가의 주요산업으로써 위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외식산업의 전 · 후방연쇄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내 외식산업은 후방연쇄효과가 약하고 전방연쇄효과가 비교적 컸으며, 이로써 외식산업이 타산업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외식산업의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를 분석한 결과 외식산업의 최종수요가 발생함으로써 타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약했으며, 타산업의 수요 유발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최종수요항목별 생산 · 수입 · 부가가치 · 취업 · 고용 유발 의존도를 타산업과 비교해 볼 때, 최종수요항목 중 민간소비지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으며, 투자에 비중이 적었던 산업적 특성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가 갖는 한계는 산업연관표의 추계기준에 따른 문제점이였다. '95년 산업연관표의 음식점 부문의 총산출액은 5조 1,985억원으로 동년 통계청의 음식업 부문의 매출액 20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외식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과소 추계 되었을 가능성과 상대적으로 타산업 부문이 과대 추계 되었을 가능성을 갖게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외식산업에 대한 분류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겠다. 최근 들어 외식산업은 맞벌이 가정의 증가, 사업체 집단급식의 증가, 학교급식의 확대실시, 주 5일제 근무의 확산, HMR (Home Meal Replacement)과 반조리 가공식품의 확산 등을 포함한 시대 흐름에 맞는 외식산업의 정의를 반영하여 분류 체계를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연관표상의 음식점 산출액 추계방식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반영과 기관에서 발표되는 각종 통계 자료들간의 추계 기준이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추계기준의 상이함으로 인한 '95년 산업연관표의 음식점 매출액은 5조 1,985억원으로 통계청의 '95년 매출액인 20조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셋째 국내 실정에 맞는 외식산업의 체계적인 수립과 발전 대책을 지원할 국가의 전담 부서 설치와 외식관련 통계자료를 추계할 부서의 설치가 시급하다. 미국의 경우 외식산업을 Food service industry로 독립시켰고 NRA (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에서는 일정한 외식산업의 분류에 따라 외식산업의 규모를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있으며(Park 1999), 일본은 농수축산성 유통국의 외식산업실과 같은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 있어 체계적인 외식산업의 분류 체계의 확립과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국민 식생활과 국민 체위 연구, 외식업의 금융 지원, 농어촌의 산지와 소비지의 연결, 국민들의 식생활과 관련된 장기정책, 외식과 농수산에 관한 통계 · 외식에 관한 각종 자격증에 관한 폭 넓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Park 2001). 넷째 산업연관분석을 외식산업에 확대 적용시킨 관련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하겠다. 산업연관분석은 외식산업의 성장요인 분석, 외식산업의 구조 분석, 외식산업의 지역 경제단위의 산업연관분석과 더 나아가 산업

연관분석을 발전 · 확대시킨 사회계정행렬(SAM), 연산일반균형(CGE), IMPLAN 등의 관련 연구(Roo 2000)가 활발히 진행되어서 외식산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Kang KH (2000): Theory of input-output analysis, pp.3-5, Yeon-am press, Seoul

Kim NJ (1998): Comparative analysis of Tourism multiplies by aggregation of industries on Input-output analysis. *The Tourism Sciences of Korea* 22(1): 74-76

Na JK (1998): Understanding of food service industry, Paek-san press, Seoul

Roo KH (2000): The structural change and sources of industrial growth in the Korea tourism industry, doctoral thesis, the kyonggi University of Korea, p.47

Roo KH, Lee KW (1999): The economic effect of tourism. *Korea Tourism Research Institute*, pp.11-12

Park SH (2001): Food service is a industry, Nolboo madang, Nolboo Inc.

Park HK (1999): A study of food service industry in Korea, masters degree thesis, the kyongnam University of Korea, p.4

Son TH (1997): A Review of Tourism Input-Output Models in Tourism Studies. *The Tourism Sciences of Korea* 20(23): 15

Jeong JY (1998): An introduction to economic, pp.119-123, Dae-kyong press, Seoul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0): An yearbook of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Bank of Korea (2001): 1998 input-output tables (extened table), p.10

The Bank of Korea (1987): Explanation of input-output analysis-principle and usage, pp.17-21

The Bank of Korea (1998): Input-output tables CD-ROM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0): Korea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Chenery HP, Clark PG (1959): Interindustry Economics, John Wiley & Sons, Inc., New York, pp.105-106

Fletcher JE, Input-output analysis and tourism impact studi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16(4): 514-529

Leontief W (1936): Quantitative Input-Output Relations in the Economic System of the United Stat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X VIII, Aug, pp. 105-125

Richardson HW (1972): Input-output and regional economics, John Willey & Sons, p.52

Schultz S (1976): Intersectional comparison as an approach to the Identification of key sectors in Advances in Input-Output Analysis. *Polense and Skolka* pp.65-67

William HM (1965): The elements of input-output analysis, New York, Random House, p.81